

간에 논쟁이 있는 것은 필연적이고 같지 않은 의견이 있는 이것도 필연적이다. 무엇 때문인가? 어쨌든 당신의 그 집착하는 마음을 표출시켜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쟁 중에서 장기적으로 대치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모두 안을 향해 찾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신의 문제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모두 대법을 위해 책임을 다하려 하는바, 출발점은 모두 좋지만, 흔히 당신들은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그 무슨 속인 마음이 있기가 쉽다. 반드시 이러한 일에 주의해야 한다.

오늘 정법 중에서 이 한 걸음에 이르기까지, 대법제자들, 당신들이 정법 중에서 한 일체를 사부는 모두 긍정한다. 나는 1999년의 7.20에서 7.20 이전의 수련생들을 전부 제 위치로 밀었는데 당신들의 가장 높은 위치로 밀어 올렸다. 이전에 나는 당신들에게 알려주었는데 당신들의 개변은 가장 미시적이며 가장 본질적인 데서 시작하는 것이다. 어떤 수련생은 자신이 수련하는 것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다. 당시에 여러분은 모두 이러한 느낌이 있었다. 당신들의 원만 과정, 당신들의 최후의 수련제고, 이 모두는 장차 당신들이 법을 실증케 하기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개인수련 단계에 법을 잘 학습하면

면 그것은 하나의 강대한 마음, 강대한 장애가 아니겠는가? 당신은 진정으로 이 동안의 시간을 잘 이용하지 않고 그것이 빨리 끝나기만 바란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오늘 우리가 바로 끝내면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더욱 큰 천체의 아주 많은 생명과 대응되는데 곧바로 끝낸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도태되겠는가? 그들 중 아주 많이는 또 방대한 천체를 대표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들이 머릿속에서 우주대법을 적대시하는 사악한 생각을 깨끗이 제거해 버리지 못한다면, 그들의 도태로 인하여 그들과 대응되는 우주에서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버리겠는가? 얼마나 많은 생명이 도태되겠는가?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았는가? 당신들은 대법제자이며 역사가 당신들에게 위대한 책임을 부여하였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간을 잘 이용해야 하며, 결속되지 않고 있는 이것이 바로 중생을 구도할 기회이다. 시간이 아주 짧다. 일단 법정인간(法正人間)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각기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고정된다. 비록 우리가 이 구세력의 배치를 승인하지 않지만 당신들은 이 기간에 자신을 단련했고 대법제자의 위덕(威德)을 수립했다. 대법제자로서 대법이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이 우선 생

각한 것은 중생을 구도하는 것이었으며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하면 대법을 실증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위대하지 않은가? 이번 사악의 배치에 대해 우리는 전혀 그것을 승인하지 않지만 박해는 결국 나타났고 사악은 어쨌든 그렇게 많은 중생을 박해했는데, 우리가 우선 시간을 다그쳐 그들을 구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번 박해를 속인이 사람을 박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속인의 마음으로 문제를 생각하면서, ‘어느 세월에 우리들의 누명이 벗겨지겠는가? 어느 세월에 결속되겠는가?’라고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런 생각이 대법제자가 해야 할 생각인가?

시간이 길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기독교는 박해를 받고 3백년 후에야 비로소 일어섰다. 중대한 사명을 지닌 대법제자가 보통 수련자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관건은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느냐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는데 중생 구도에 십년이 더 걸린다면, 당신들은 하겠는가 하지 않겠는가? (수련생들 일제히 대답: “할 것입니다!”) (박수) 이것이야말로 대법제자이다. (박수) 물론 십년이 더 걸리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긴 시간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것들의 수명 또한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다.

사부: 그 어느 때에도, 단체로 일을 하거나, 개인이 법을 실증하거나 일체는 모두 대법을 위주로 하고 일체는 모두 법으로 기능해야 하며, 절대로 누가 천목이 열려 본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본 것은 아주 많은 것이 비록 진실한 것이지만 국부적이며, 동시에 층차의 제한이 있고 개별적으로는 또 집착으로 조성된 가상(假相)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이 우주 중 아무리 높은 신(神)이라 해도 그에게 우주는 모두 수수께끼며 그마저도 우주 정법 중 구도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들이 본 것,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들이 위치한 층차의 그러한 일들이지 우주전반의 진상(眞相)이 아니며 정법 중 대법제자가 해야 할 진정한 최후의 진상은 더욱 아니다. 당신들은, 그러한 신(神)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보았든지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들었든지 모두 그것을 믿지 말아야 하며 대법과 사부의 요구에 따라서 해야 한다. 모든 일이 비할 바 없이 중대하고 비할 바 없이 위대한바, 모두 바르게 걸어야 한다! 어느 사람이 본 무엇을 지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대법제자들 속에서, 매번 무슨 일을 할 때 서로

으로 중생을 구도하고 있으며 당신들이야말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자격이 있는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만큼 말하려고 한다. 다음으로 만약 당신들이 아직도 꼭 제기해야 하고, 또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면 제출할 수 있다. 내가 다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분에게 해답해 주겠다. 당신들의 사업 중, 생활 중, 수련 중 개인의 구체적인 일, 그것은 당신들 개인수련 중에서 제고해야 할 요소와 조건인바 당신들 자신이 깨달아야 하고 넘어야 할 고비이다. 나는, 자신이 깨달아 알게 된 후의 위덕(威德)은 그래도 당신들 자신에게 남겨주려고 생각한다. 내가 해답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

제자: 발정념 할 때 구결(口訣)과 수인(手印)의 대응은 고정적입니까?

사부: 아니다. 두 가지 구결은 두 가지 수인에 임의로 대응할 수 있다.

제자: 정법 중, 천목(天目)이 열려 볼 수 있는 수련생이 말하기를, 법으로 일체를 가늠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그러나 관건은 대법제자가 어떻게 문제를 보는가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대법제자가 모두 이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된다. 당신들은 1999년의 4.25 이전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의 그 총리는 대법을 긍정하지 않았는가? 4.25에 수련생들이 상방(上訪)할 때 그 역시 대법제자를 접견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좋게 말했다. 이번 박해가 시작된 후 우리 일부 수련생들은 이로 인하여 많은 속인의 마음이 생겨났다. 곧, ‘중국대륙의 그 사악의 우두머리 그것으로 하여금 빨리 죽게 하여 그것이 쓰러지면 그 총리로 갈아 바꾸기 쉬울 텐데, 그 총리로 바꾸면 우리는 누명을 벗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당신들은 생각해 보았는가. 이는 우주의 법(法)인데 사람이 탄압하고 싶으면 탄압하고, 누명을 벗겨주고 싶으면 벗겨줄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은 그럴 자격이 없다! 어떻게 한 속인에게 희망을 걸 수 있겠는가? 당신들은 대법제자들이다! 당신들 한 대법제자만 해도 아주 크고 방대한 공간을 대표한다. 인류가 다 무엇인가. 단지 구세력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고 당신들의 더욱 큰 능력을 봉쇄해 놓았을 뿐이다.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가? 만약 당신들이 모두

이렇게 생각한다면 구세력이 보고서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이 마음을 제거해야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총리를 나쁘게 변하도록 하자, 차라리 그를 나쁘게 변화시키더라도, 당신들의 그 속인 마음을 제거해야겠다.’고 한다. 이렇지 않은가? 구세력은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에 죽으려면 죽이는데, 정법 속에서 그것들은 자신들의 배치에만 집착한다.

정법(正法) 이 일이 만약 정말로 파괴된다면 우주는 정말로 없어지며 그 구세력도 없어지게 된다. 그 어떠한 생명도 모두 없어지며 일체는 모두 해체되고 만다. 구세력은 비록 우주를 갱신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낼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들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에 집착하여 정법 이 일을 좌우지하려는 망상이 끼치는 영향은 백분의 백으로 나쁘다. 정법 중에서 일어나는 이 일체 교란은 모두 그것들이 배치한 것이기에 그것들이 배치한 요구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나쁜 짓을 한다. 이러한 생명은 정법 중에서 도태되어야 할 대상이다. 당신들은 진상을 알리는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제도하기가 아주 힘든 것을 보았을 것이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세상의 아주 많은 사람이 이미 전혀 구도(救度)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신들은 내가 쓴 “자비

사람의 골격을 공룡 골격에 맞추어 놓고 있으며 피라미드의 건축에 대해서도 현재의 편협한 인식으로 추리하고 사고한다. 사실 지금 물질세계에 대한 과학의 인식 대다수는 틀린 것이며 위치를 정하는 기점마저 틀린 것이다. 그 만유인력학설조차도 틀린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방금 인류 역사의 뚜껑을 열었다. (박수) 역사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인류는 대법을 위해 창조되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역사를 말하는 중에서 당신들에게 법을 말해 주는바, 이 일체는 모두 법과 관련이 있는 문제로서 아주 많은 일이 대법제자로 놓고 말하면 모두 아주 중요한 일이다. 특히 이러한 일과 현재 당신이 하는 이 일체는 모두 관통되어 대법에 대한 당신의 책임이 그 안에 있는바, 대법제자 자신의 심층의 중대한 요소가 그 속에 있다. 목적은 여러분이 금후 정법 중에서 더욱 잘 하기를 바라서다. 반드시 노력하고 반드시 잘 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일체 원만으로 당신은 책임이 있으며, 당신은 중생을 구도하는 사명과 책임을 갖고 왔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모두 중생을 구도한다고 외치는데 누가 중생 구도의 진정한 함의가 무엇인지 알겠는가? 당신들이야말로 진정

졌는지 해석하지 못한다. 그렇게 큰 돌을 사람이 어떻게 운반했을까? 5미터 크기의 몇 사람이 운반하면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의 큰 돌을 옮기는 것과 같다. 5미터 크기의 사람이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은 마치 우리들이 오늘날 큰 빌딩을 짓는 것과 같다. 다른 하나는 어찌하여 공룡과 같은 그렇게 큰 동물이 있었는가? 사실 그것은 대인(大人)에게 준비해 준 것이다. 5미터 크기의 사람이 공룡 등 대형동물을 보는 것은 우리 현재의 사람이 소를 보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부동(不同)한 사람에게는 부동한 물종(物種)을 준비해 주어야 한다. 지구상의 일체 물건은 모두 사람을 위해 만들었고 사람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는데, 동물은 절대로 사람과 동등할 수 없으므로 절대로 동등하게 대할 수 없다. 당신은 그것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고 그것을 애호할 수는 있으나 절대로 사람과 같이 대할 수는 없다. 사람은 신(神)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사람을 모욕하고 신(神)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 역사의 진실은 머지않아 사람들에게 펼쳐질 것이며 그때가 되면 인류는 진정으로 우주, 생명, 물질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어떤 사람은 고고학에서, 그는 그

로 구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慈悲救度知多少)”라는 그 구절을 기억하는가? 대법제자들이여, 진상을 알리는 중에 당신들이 얼마나 더 노력을 한다 해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는데, 최후에는 아주 많은 생명이 여전히 구원되지 못한다. 그들은 반드시 도태되고 말 것이다. 나는 중국대륙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태될 것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 수량이 아주 방대하여 몹시 두려울 정도다.

내가 화제를 다시 돌려 말하자면, 나는 방금 나와 구세력의 관계를 말했다. 이 구세력, 그것들은 우주가 성(成), 주(住), 괴(壞), 멸(滅)의 법리(法理) 중 최후의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기에 자신을 구해내기 위해 상당히 오랜 연대 이전부터 이 일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으며, 나 역시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나를 본 적이 있는 생명이 없고, 나를 무엇이라 불러 본 적이 있는 생명이 없다. 나는 또 형상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우주 중의 일체 생명이 구성된 것과 모두 같지 않은바, 우주 내의 중생으로 놓고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만약 우주마저 없다면 단지 나 혼자일 것이다. 나는 바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생명은 없다. 그러나 내가 없으

면 우주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바로 우주 대궁(大穹)이 해체될 때 다시 새롭게 정법하는 중에서 중생을 구도하기 위해서다.

사실 구세력의 일체 소행은 우주 생명의 본능적인 자구(自救)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매번 대궁(大穹)이 해체되기 전, 그때의 중생 역시 모두 이렇게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해체를 가속하였다. 다시 말하여, 정법 중의 중생의 행위는 단지 정법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써 남기고 남기지 않음이 결정되는바, 정법에 대한 행동에 따라 그들의 위치를 다시금 배치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 역시 중생의 성(成), 주(住), 괴(壞), 멸(滅) 최후 단계의 표현일 뿐이다.

내가 직접 대궁(大穹)의 중하(中下) 층차 중에 나타났을 때, 대궁 중 고층생명인 그것들은 보았다. 나는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쌓아서 있게 되었는데, 입자의 조합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입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한 걸음에 사람 여기에 올 수 없다. 만약 신체가 아주 미시적으로 구성되었다면 우주의 일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어느 층의 생명일지라도 그 한 층 아래의 우주로 진입하면, 그 한 층 우주는 곧 휘멸되고 만다. 왜냐하면 물질이 더욱 미시적일수록 에

화롭지 않아 적합하지 못함을 발견했다. 나중에 발견하였는데 소인 역시 어울리지 않았다. 당시 지구 전반은 모두 삼림(森林)으로 뒤덮여 토지 한 패기도 없었는데, 그가 개간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았는데, 만약 오늘날의 이러한 문명을 창조하게 한다면 그들로서는 아주 어려웠다. 동시에 지상(地上)의 시간도 소인으로서는 지나치게 길었고, 거리도 지나치게 길었으며, 소인이 대양(大洋)을 횡단하려면 그것은 정말 너무 어려웠으므로 소인도 적합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대인과 소인은 도태되었다. 한 번에 도태된 것이 아니며 5천만 년 이후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역사에서 도태되었다. 대인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시선에서 사라진 것은 2세기 전으로, 다시 말하여 2백여 년 전 대인은 비로소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소인은 7, 80년 전까지도 본 사람이 있었으며 근대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종적을 감췄다. 그러나 모두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일부는 다른 공간으로 갔고 일부는 지하로 갔다. 그들은 도태인(淘汰人)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과 접촉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까지 말하고 나는 두 개의 역사적인 수수께끼를 밝히고자 한다. 인류는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

그 속의 내포는 아주 크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곳의 중생이 궤멸되면 얼마나 무서운가. 그들이 대표하는 것이든, 그들 자신이 대응하는 공간이든 중생이든 모두 중대한 생명군이다.

여기까지 말하고 한 마디 보충하겠다. 나는 방금 이 지구의 역사는 1억 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이 지구상의 1억 년은 두 개의 큰 시기로 나누는데 5천만 년이 한 시기이다. 전 5천만 년은 대인(大人), 소인(小人), 중인(中人)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였다. 대인(大人)은 평균 5미터였고, 중인(中人)은 현재 우리 오늘날의 인류인데 평균 2미터가 되지 않았고, 소인(小人)은 불과 몇 치(寸)였다. 당시 신(神)이 사람을 만들 때 어찌하여 동시에 이 세 종류 사람을 만들었는가? 이는 이 세 종류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지구상에서 최후의 그 일보까지 생존하고, 법을 얻는 데 적합한지 실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5천만 년의 과정 중에서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세계에 대한 사람의 인식능력을 키우고, 한편으로는 어느 종류의 사람을 남길 것인가를 확정지어 왔다. 최후에 대인(大人)은, 그의 신체가 크므로 지구에서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단축되고,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아지며, 대인의 물질자원 소모와 지구자원의 비례도 조

너지가 더욱 크며 그 방사성(放射性) 또한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신(神)의 에너지라 의식(意識)이 있고 자비로운 것이지만 역시 일체를 개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 층 한 층씩 전생(轉生)하여 그 한 층 입자의 표면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그 한 층차에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렇게 한 걸과 세월이 너무나도 길지 않았겠는가. 나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들어왔다.

나뿐만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내려온 아주 많은 대궁내의 신(神) 역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야 비로소 내려올 수 있었다. 천체 중에서 오는 부동한 층차의 아주 많은 신(神)들의 목적은 와서 대궁을 구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에 비하면 모두 극히 높은 층차의 생명으로, 당시 정말 아주 많은 고층 생명들이 이 일체를 구원하려는 소원을 품고 내려왔다. 본래의 소원은 좋았으나 그들은 할 수 없었다. 비단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돌아갈 수도 없었다. 사실 누구든지 삼계에 들어 오기만 하면 영원히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 대궁의 가장 높은 곳의 그러한 생명들은, 얼마나 많이 들어 왔는지에 관계없이,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서는 줄곧 나를 지켜보아왔다. 그것들은 위에서 아주 똑

똑히 보았다. “아, 이것이 할 수 있겠구나.” 그것들은 나의 생명을 구성하는 것이 우주 중의 기타 생명과 모두 같지 않고, 어떤 것도 다 본질을 움직이지 못함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나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지상(地上)에는 아주 많은 신(神)들이 왔다.

그것들이 비록 나를 선택했으나,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내가 어찌하여 또 그것들의 역사 중 일부 배치에 동의하였는가?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방금 대법제자는 3개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중 한 부분은 연(緣)을 맺어 온 것으로, 이 부분 대법제자의 수가 상당히 많다. 아주 먼 천체에서 여기로 와 연(緣)을 맺는데, 상당히 멀고 방대한 천체의 수많은 생명을 대표하고 있으며, 그는 지구 여기에 와서 연(緣)을 맺게, 중생들이 파견한 대표이다. 왜냐하면 정법 이 일은 여기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러면 우주의 가장 높은 곳의 그러한 생명, 그것들은 곧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과 연(緣)을 맺을 것인데, 그러한 아주 먼 천체에서 온 못 신(衆神)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 연(緣)을 맺을 것인바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면(正面)적인 역할을 하든, 부면(負面)적인 역할을 하든, 정법은 구세력의 배치를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중생이 정법을 정확하게 대하기만 하면 곧 도태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만약 법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곧 구도할 것이다. 과거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민주(民主)라는 것이 세상에 나타났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 한 민족, 그 한 천체 중에서 온 왕(王)이 모두 중국으로 와 전생(轉生)했기 때문인데, 누가 그곳에서 다시 왕이라고 불릴 수 있겠는가? 최후 구세력 중의 그러한 고층 생명들은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선출하게 하자. 당선되더라도 왕이라고 부르지 말고 대통령(總統)이라고 부르게 하자.”라고 결정했다. 당선이 되어도 왕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고, 좋지 않으면 그를 욕할 수도 있으며, 더 안 되면 탄핵하여 다시 뽑는다. 이는 위에서 민주를 배치한 진정한 원인이었다. 또 기타 요소도 있다. 사람 여기에서의 표현 역시 사람 이 한 층의 표현 이치가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고 있다. 때문에 중국 그곳 사람들, 그들을 볼품없다고만 보지 말라. 이는 근대에 이르러 업력이 커져서 조성된 것이며 이 허울(皮)은 비록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지만



으며, 스웨덴은 북송(北宋)이었고, 대만은 남송(南宋)이었으며, 일본은 수(隋)였다. 당시 각 조(朝)의 사람들이 중국을 떠나 환생해 간 곳은 현재의 국가가 아직 없었을 때이고, 여전히 황폐한 지역에 속했다. 다수가 모두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전생했고 근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 자리에 돌아왔다. 이 한 조대의 사람들은 여기에 왔고 그 한 조대의 사람들은 저기로 갔는데 바로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어느 것이 중국인가? 누가 중국인인가? 중국의 진정한 의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은 존재하는가? 국가라 부르고 있으므로 지금은 조대(朝代)도 없지 않은가? 실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후의 한 막을 연출해야 할 때, 법을 전해야 할 때, 나와 연(緣)을 맺은 적이 있는 전 세계의 중생, 혹은 법 얻을 가능성이 가장 큰 그러한 사람들과 대법이 널리 전해질 때 나와서 부면(負面)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모두 중국으로 되돌아왔다. 법을 얻든 파괴를 하든, 모두 이 법을 위해 왔고, 법을 위해 태어났으며, 법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 모두 다 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인은 가장 복잡한데 그것은 정법시기를 위해 온 전 세계의 정부(正負) 생명이 집중되

만약 구세력이 대궁을 갱신하는 층층의 모든 일들을 아주 세밀하게 모두 다른 한 생명에게 배치해 준다면 그것은 아주 망치는 것이다. 이는 연(緣)을 잘못 맺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렇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나의 정법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엄청난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일단 구도가 시작되면, 그것들이 선택한 사람이 해낼 수 없어도 구도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나 역시 진정으로 정법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들은 반드시 내가 그것들을 교란한다고 여길 것이므로 그것들은 곧 이 구 우주 전반의 모든 생명을 죄다 끌어와 나를 소멸하려고 할 것이다. 그것들은 반드시 나를 그것들의 일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소멸하려 하겠지만 그 누구도 나를 소멸하지 못하며 누구도 나의 정법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무슨 상황이 나타나겠는가? 정법의 속도는 절대 영향 받을 수 없으므로 그것들이 가로막으면 나는 곧 그것들을 깨끗이 제거해 버릴 것인데, 참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순식간에 모두 휘멸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나는 중생을 구도하러 온 것이 아닌가. 그런데 모두 휘멸한다면 또 누구를 구도하겠는가? 그러므로 역사상에서 그것들이 나를 선택했을 때, 나는 그것들을 구도할

생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그것들이 알지 못하게 했다. 이리하여 그것들은 인류 역사의 일체 일들을 포함한 대궁 중의 일체를 배치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정법이 시작될 때면 이는 그것들에게 역시 고향이 된다. 그것들이 하는 일체는 모두 새로운 우주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나는 곧 그것들이 하는 이 일체를 유희(遊戱)로 간주한다. 그것들이 놀고 싶어 하면 나는 놀아주는데 단지 이럴 뿐이다. 진정한 정법(正法)은 어떠한가. 그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절대로 새로운 우주가 어떠한지 그것들이 알지 못하게 한다. 정법 중에서 일체 생명은 모두 누락되지 말아야 하기에 그것들은 그것들이 나를 배치한 것이 나를 제도하는 것과 같고 그것들에게 공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법 후의 우주는 어떠한지, 그것들 자신은 어떠한지, 그것들은 다만 그것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며 그것들이 남기려고 하는 것을 남기려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예를 들어 새로운 우주를 순금(純金)이라고 말하면, 불순한 생명이 하나만 들어가도 그것은 바로 불순한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허용할 수 있겠는가? 어떠한 생명도 모두 정법 이 일에서 뛰쳐나가지 못하고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며, 천체대궁(天體大穹) 중의 일체가 모두

는, 다음 한 세(世)에 다른 지역에 전생하여 대법이 전해지는 그 날을 기다렸다. 매 한 조는 모두 이러하였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은 다 중국에서 전생(轉生)했다. 각 나라의 사람을 포함하여, 최근 법이 전해지기 시작한 후 또 내려온 대량의 상계(上界) 생명을 제외한 역사상의 각 나라 사람들은 모두 중국에서 전생한 적이 있다.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당신은 지구에서 우선 중국인으로 되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제일 먼저 그곳에서 전생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말한 김에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실제로 중국의 국가형식과 내용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말한 것이 놀랍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사실 중국문화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각 조대(朝代) 중에서 남긴 것으로 연(緣)을 맺고 있는 곧 다른 지역으로 가 전생했다. 예를 들면 현재의 미국인은 대명조인(大明朝人)이었다. 현재의 미국인은 도(道)를 아주 좋아하는데 아직도 그 시기의 관념이 남아서 나타난 것이다. 명조인(明朝人)의 도(道)가 최정상에 달했을 때, 일부 성시(城市)에는 거의 집집마다 화로(爐)를 설치하였다. 영국은 대당(大唐)이었고, 프랑스는 대청(大清)이었으며, 이탈리아는 원(元)이었고, 오스트레일리아는 하(夏)였고, 러시아는 주(周)였

막이 다시 열리면 조대가 바뀐다. 일조일대, 일조일대 이렇게 매번 지나면서 연(緣)을 이어 역사를 남기고 인류가 필요로 하는 문화를 창조하였는바 한 막 한 막씩 표현하였다. 무엇 때문에 중국 이 지방에서는 조(朝)라 하는데 중국 이외의 기타 지역에서는 모두 국가(國家)라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들의 수령(首領)을 왕(王)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황제(皇帝)라고 하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이것은 한낱 용어와 문화상의 차이가 아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대법을 위해 창조된 것이고 대법은 이 극의 주요 줄거리(主線)이며 중생의 존재는 일체가 모두 이 주요 줄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사람들은 모두 극 중의 사소한 모순과 충돌에 골몰해 미혹되었고 극의 주제를 잊어버렸으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다. 이 극의 무대가 바로 중국이다.

일조일대(一朝一代)씩, 매 한 조(朝)의 사람은 모두 한 조(朝)의 천인(天人)으로서 멀고 먼 천체에서 온 대표인바, 그곳의 무수한 중생들을 대표해 여기에 와서 연(緣)을 맺어 정법 중에서 그러한 중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한 조(朝)에서 연(緣)을 맺는 중에 그들이 가져온 문화를 남겨놓았다. 연(緣)을 맺은 후에

그 속에 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구세력 그것들이 어떻게 배치하였든지 그것들대로 배치하게 하라. 하지만 최후의 이 일은 절대로 그것들의 요구대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타난 이 일체의 저애력은 이 구세력이 나로 하여금 기어코 그것들이 배치한 대로 하게 함으로써 조성된 것이다. 이 저애력이 얼마나 크든지 사실 모두 내가 정법하는 본질에는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속도 역시 빠르며 일체는 역시 나의 요구에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는바, 새로운 우주의 일체는 완전히 대법표준에 따라 건립되고 있다. 실제로 구세력은 바로 정법이 아직 오기 전의 이 빈틈 중에서 연출(表演)하고 있으며, 대법제자 역시 이 기간의 시간 중에서 법을 수호하며 중생을 구도하고 있고, 구세력에게 이용당한 사악하고 저질적인 생명 역시 여기에서 대법제자와 중생을 박해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저질적이고 사악한 생명이 조종하는 악인(惡人) 역시 이 동안의 시간 중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

이 구세력이 이러한 일을 배치하는데 사람 여기에서 얼마나 긴 시간이 소요되었겠는가? 두 개의 지구 시간이다. 내가 과거에 말한 적이 있는데, 대법이 인간세상에서 전해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많은 수련생들이 곧 나

에게 내가 어느 때에 전했는가 묻는데 바로 먼젓번 지구에서 전했다. 무엇 때문인가? 구세력이 마지막에 그것들이 배치한 갱신(更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먼젓번 지구에서 이번 지구를 위한 실험을 했는데, 이는 미리 한 차례 실험을 하여 문제가 생기거나 빗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실험을 해야 했는가? 과거에 지구 이곳에는 사람과 같은 이런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늘 외계인을 말하는가? 바로 지구 이곳의 생명은, 과거에 지구를 얼마나 많이 갱신했든, 여기의 주요 생명은 모두 외계인과 같은 그러한 생물이었기 때문이다. 때 한 시기 같지는 않았으나 모두 사람의 형상이 없었다.

역사상 신(神)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모양을 모방하여 사람을 만들었는가? 이는 수련계에서도 수수께끼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바로 이곳에서 법을 전함에, 법을 듣는 중생은 반드시 법을 들을 자격이 있는 형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무리 동물이 와서 법을 듣게 하는 것은 대법(大法)에 대한 모독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대법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어느 신(神)이 이 생물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

서는 안 된다. 한 조대(朝代)의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사람은 진정으로 그것의 진정한 내포와 심층관계에 이르기까지의 행위를 이해하게 되었다.

역사상으로 또 제자백가(諸子百家)가 있었으며, 또 공자(孔子)의 중용사상(中庸思想)이 제기한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 등등이 있었다. 석가모니, 노자(老子), 예수의 출현은 비로소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날 무엇이 바른 믿음(正信)이고, 수련(修煉)이며, 무엇이 불(佛), 도(道), 신(神)인지 이 일체를 진정하게 인식시켰다. 역사적으로는 오늘날 인류의 사상을 풍부하게 했고 사람으로 하여금 법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했으며 법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인류의 일체 역사과정에서 모두 이러한 기초를 다졌다. 다시 말해서 대법을 전하기 위해 사람과 사람의 문화를 육성했는데, 법은 인류의 문화에 부합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며 인류 문화의 산물은 더욱 아니다. 이는 바로 이 5천 년 중에서 우리가 한 것이다.

여기까지 말했는데, 가장 형상적으로 말해서 인류사회는 마치 한 막(幕)의 연극과 같다. 일조일대(一朝一代)씩, 그것은 마치 막이 열리면 한 조대(朝代)가 공연을 시작하고 그 조대가 끝나면 막이 닫히는 것과 같다.

인물(英雄人物)에서 강도에 이르기까지,(웃음) 문인(文人), 명인(名人)에서 영웅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신들이 한 것이다. 여러분은 웃지 말라! 강도 배역을 맡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오늘 설법할 때 사람은 강도가 무엇인지 모르며, 강도의 행위는 어떠한고 사상 감정은 어떠한지, 강도는 어떤 형상인지 모를 것이다. 법(法) 속에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삼국연의(三國演義)』를 알 것이다. 『삼국연의』는 하나의 ‘의(義)’를 말하였다. 한 조대(朝代)를 지나면서 세 개의 세력이 서로 겨루는 중에서 충분히 ‘의(義)’의 내포를 표현해 냈다. 더욱이 한 조대(朝代)라는 이렇게 지나간 세월을 경과하면서 이 ‘의(義)’의 심층문화를 표현해 냈지만, 오늘날 법을 전하게 되어서야 인류는 비로소 ‘의(義)’에 대해 깊은 인식이 있게 되었는데, 무엇이 의(義)이고, 의(義)의 표면 뜻과 내포에서 파생된 상호관계와 심층에 반영된 뜻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단지 이 글자의 표면 뜻만 알 것이 아니라 내포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 물론 『삼국연의』 중에서는 사람의 지모(智謀) 등의 내포도 표현하였다.

그 남송(南宋)의 악비(岳飛)는 ‘충(忠)’을 표현하였다. 무엇이 ‘충(忠)’인지 당신은 단지 말로만 해석해

었다면, 이는 신을 모독하는 것과 같기에 그 모든 신들은 모두 그를 제거해 버릴 것이다. 정법을 위해서, 신은 자신의 모습을 모방하여 지상(地上)의 사람을 만들었다. 동양 사람은 동양인 이런 형상의 신이 창조한 것이고, 서양 사람은 서양인 형상의 신이 창조한 것이며, 또 흑인 형상의 신이 흑인을 창조하였고 다른 인종(人種) 역시 다른 신이 창조한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창조한 그러한 신을 주(主)라고 불렀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은 백분의 구십이 모두 고층에서 온 생명으로서, 다수는 층차가 아주 높은바, 단지 신(神)이 당초에 만든 인피(人皮)를 이용했을 뿐, 그들 본신(本身)은 사람의 생명을 창조한 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때 내가 첫 번째 지구에서 법을 전할 때는, 그렇게 큰 법을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단지 실험을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말한 법은 단지法輪世界(파룬쓰제)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기에 그 한 시기 제도된 중생은 모두法輪世界(파룬쓰제)에 있다. 그 지구는 줄곧 그것들로 하여금 최후의 단계까지 존재하게 하였고 과학기술은 상당히 발달하였는데, 달은 그때 올려 보낸 것이다. 그러나 공업의 발달로 인하여 당시의 공기, 물, 토양, 식물과 사람의 식품 일체에 모두 변이(變異)가 생

졌으며, 최후에는 사람마저 모두 기형이 되었고 지구상의 에너지 자원도 다 소모되었으며, 이 한 시기의 사람 또한 소멸되었다.

이번 시기 지구의 시작은 1억 년 전부터다. 우리 여기에 앉아 있는 어떤 사람은 ‘내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은 35억 년에서 45억 년입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매 한 시기의 지구는 모두 1억 년이었고 먼젓번 지구 역시 1억 년이었다. 그러나 나는 『전법륜(轉法輪)』에서 당신들에게 말하기를, 그 지구상의 문물(文物)은 몇억 년, 심지어 20억 년 전 것도 있다고 나는 말했다. 나는 단지 사람들에게 사전문명(史前文明)이 존재한다는 것만을 알려주었는데, 사람은 여기까지만 알 수 있다. 이 1억 년의 역사 중에서만 하더라도 인류는 아주 많은 사전(史前)의 문화를 창조하였다. 지구 이 자리에 위치했던 이전의 그러한 별(星球) 역시 여러 차례 해체와 재조합을 거쳤는데, 우주 중에는 많은 별들이 해체된 후 공중에서 떠다니며 먼지와 작은 성체(星體)를 형성한다. 방대한 천체 중에서 별들은 끊임없이 해체되고 끊임없이 새롭게 조합된다. 그것의 해체는 바로 폭발이다. 지구 역시 끊임없이 이전의 지구를 폭발하여 다음 하나의 지구를 새롭게 조합해 왔으며, 하

는 사상을 어떻게 창조하고 규범 지을 것인가? 법을 어떻게 말하려면, 거기에 맞게 인류의 문화와 인간의 이 사상을 육성해야 한다. 전 세계의 사람이 모두 무엇이 덕(德)이며, 무엇이 믿음(信)이고, 무엇이 선(善)이며, 무엇이 악(惡)이고, 좋고 나쁨인지를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중국 그곳에서의 표현은 더욱 구체적이고 내포도 더욱 깊어야 했다. 왜냐하면 법은 바로 그곳에서 전해야 하고 일도 그곳에서 해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진정으로 법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문화를 육성해야 했다. 내가 전에 당신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나는 역사상 줄곧 아주 많은 대법제자들과 연(緣)을 맺었다. 연(緣)을 맺은 것은 단지 하나의 표면적인 목적이며, 연을 맺은 후 대법제자와 나는 함께 인류문명과 대법이 요구하는 문화를 창조하는 짐을 져야 했다. 왜냐하면 역사상의 한 평범하고 평범한 속인이 대법을 전하기 위해 육성한 인류역사에 무슨 문명, 유적, 학설을 남긴다면, 그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상 남겨진 일체 문화는 모두 우리 대법제자들이 만들었는데, 물론 사부가 당신들을 데리고서다. 인류의 역사는 마치 한 막(幕)의 연극과 같은 것으로서, 당신들은 국왕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영웅

고, 침착하고 냉정하며, 이지적으로 사고하고, 심지어 창조능력도 있다. 사람이 이러한 사상, 정상적인 사유상태를 구비할 수 있는 이것은 기나긴 역사의 세월 속에서 신(神)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만들어 준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이 과정은 줄곧 5천 년 이전까지 연속되었다.

약 5천 년의 중국의 반신문화(半神文化), 이 기나긴 시간을 거쳐 사람이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을 체계적으로 규범화하기 시작했다. 사람 공간의 이치는 비록 반대로 된 것이지만 우주의 대법(大法)은 바르다. 내가 설법할 때, 삼계 이상의 부동(不同)한 층차에서 듣는 법리의 내포, 문자, 표현형식은 같지 않지만 법리는 관통되는 것이다. 승화된 경지가 조성한 것은 같지 않지만 어긋난 것은 아니다. 내가 만약 사람 여기에서 한 가지를 말하고 천상에서도 또 다른 한 가지를 말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 법은 원용(圓容)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정법 중에서 사람 여기에서 말한 법은 반드시 우주 전반에 대응해야 하는데, 내가 설법할 때 층층의 나 역시 모두 설법하고 있으며, 층층의 중생도 모두 법을 듣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 법을 들을 때, 법을 알아들을 수 있

나가 폭파되면 하나를 조합했다. 태공(太公) 중에는 아주 많은 먼지가 있는데 어떤 것은 아주 크다. 어떤 것은 마치 큰 돌덩이와 같고, 어떤 것은 몇 평방킬로미터인 것이 있으며, 어떤 것은 심지어 몇 백 평방킬로미터나 되는 것도 있다. 각각의 별에는 모두 문명이 있었으며 이전의 지구에도 문명이 있었다. 그렇다면 아직 폭발로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많은 큰 물체 표면에 과거 생물의 문명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다시 지구를 만들 때 이러한 우주의 먼지를 함께 모아 새로운 지구를 만들기 때문에 이전의 지구 혹은 외계 별 위의 문물, 문명유적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현재 지질학자와 역사학자로 놓고 말하면, 내가 오늘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 지구상의 물질이 도대체 어떤 연대인지 연구해 내지 못한다. 이 지구는 내가 방금 말했다시피 1억 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현재까지 딱 1억 년이며, 또한 그것 이전에 여기에 있었던 지구와 같은 연령에 도달했다. 물론 인류는 이 1억 년 중에서 몇 번의 문명을 거쳤고 도덕의 부패로 신(神)에 의해 여러 차례 휘멸되었으며, 지금의 인류문명은 구세력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진정한 인류문화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법을 전하지 않을 때 직접 인간의

인피(人皮)를 만들었으며, 신(神)이 아래에 와서 법을 듣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긴 역사 이전에 사람을 만들어야 했는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신이 사람을 만들 때 그 속에 자신의 사상의식은 만들어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하나의 신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사람이 신의 형상을 가졌으나 신은 사람을 같은 유(類)로 간주하지 않는다. 사람의 행위는 신의 행위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초의 사람은 어떠한 모양이었는가? 사람의 이 신체 구조는 신이 만들었기에 이 공간 속에서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인체체계인 바, 그 외계 생명이 보면 모두 감탄한다! 물론 또 사람의 삼혼칠백(三魂七魄)을 포함한 완전한 인체를 구성한다. 삼혼칠백을 포함하지 않으면 단지 인체의 표면에 지나지 않는 인피(人皮)일 뿐이다. 인피와 사람이 생각하는 피부의 개념은 같지 않다. 신(神)이 말하는 인피는 골격과 혈액, 내장의 일체 표면의 인체구조를 포함하여 분자입자로 조합된 가장 표면의 인체 모두, 다시 말해서 미시적으로 볼 때 표면 분자세포로 구성된 사람, 해부 시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한 세트 표면구조 일체이다. 사람이 말하는 피부가 아니다.

그러나 우주, 인간 세상의 일체와 생명표현의 일체에 대한 인식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천세계(大千世界) 변화에 대한 그 어떠한 감당능력이 없고, 역시 그 어떠한 형태를 이룬 사상이 없으며, 우주, 지구, 자연계에 대한 인식능력과 대처능력이 없다. 그의 행동거지는 어땠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그가 기쁜 일을 만나면, 그는 나무에 기어 올라가 크게 웃으면서 멈추지 못한다. 웃는 것도 시작하면 아주 무서운데 절제하지 못한다. 그가 만약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그는 지하에 들어가 며칠이고 헤어나지 못한다. 그가 화나는 일을 만나면 결과를 생각하지도 않고 발산한다. 그는 희(喜), 노(怒), 애(哀), 낙(樂)으로 인하여 죽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러한 사람이 법을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당초에 만들어낸 사람은 바로 이랬고 그 어떠한 내포도 없으며, 그 어떠한 감당능력이 없고, 이 공간의 일체 사물에 대해 인식하는 완전한 사유개념이 없었다. 그렇다면, 사람은 곧 지나간 세월을 경과하면서 사람의 사상이 점차적으로 풍부해지고, 그의 내포와 감당능력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바로 이 1억 년 중에서 이 일을 했던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의 표현은 일에 부딪혀도 놀라지 않